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중배·김창국 외재식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가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3-4745 천리안 하이텔/ 나우콤/ Pspd

수 신 각 신문사 사회부 법조담당 기자  
발 신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담당: 문혜진 796-8364)  
제 목 사법제자리농기시민모임 월례포럼 "사법피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나?"  
날 짜 1996. 3. 30. (총 2 쪽)

## 보 도 자 료

### 사법피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나?

1996년 3월 29일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사법제자리농기시민모임 1차 월례포럼 열려

1. 바른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참여연대 사법제자리농기시민모임은 96년 3월 20일 발족한 사법정의를 위한 시민모임입니다. 사법제자리농기시민모임은 앞으로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월례포럼을 갖고 시민들이 느끼는 사법에의 불편, 부당함 등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1996년 3월 29일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사법피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나?"라는 주제로 열린 제1차 월례포럼에서는 살인누명을 쓴 김기웅 순경, 억울한 옥살이로 아들을 잃은 박경자씨, 이재순씨, 정광용씨 등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4사람이 자신들의 무죄를 밝히는 과정과 그 이후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비용이 지출되었는지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이를 기초로 형사보상의 허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4. 현재 국가를 상대로 5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중인 김기웅씨의 가족들은 김기웅씨가 구속된 후 같은 여관에 투숙했던 투숙객들을 추적하고 전과를 조회하고 사진을 입수하는 등의 활동, 머리카락 혈액감정 등 무죄의 증거를 찾기 위해 온 가족이 생업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노력했고, 변호사 비용 등 약 2억여원의 비용을 들였다고 털어놓는다.
4. 김기웅씨는 현재 구속에 대한 형사보상액수가 1일 2~5만원으로 터무니 없이 낮고 위자료 액수나 가족이 보상받을 수 있는 항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아 억울한 옥살이를

3. 지방자치센터관련해서, 지역단체들과의 협력관계 없이 소식지를 내는 것이 문제가 있으며, 현재 왜 지역단체들과의 협력을 모색하는 활동이 전개되지 않는지 또 집행부와 센터활동이 왜 긴밀하게 협의되지 않는지 의문이 다수 제기되었습니다. 소식지 발간을 조금 연기하더라도 (1) 지역단체들과의 협력을 위한 간담회등 모임 (2) 소식지와 사업에 대한 집행위의 공유를 가지면서 발간하자는 요구가 있습니다.

4. 정책실 관련해서 새로운 제안이 보다 잘 준비되고 사전 협의된 후 상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5. 공익소송센터와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간사를 빨리 배치할 것과 소송을 대중사업관 연결시키는 노력이 여전히 불충분하다는데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6. 학단협이 제안한 총선평가 공동행사는 지나치게 행사중심이므로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7. 신한국당에서 부패추방 서약하지 않은 후보들에 대해서는 한 번더 공문을 보내고 그래도 서약하지 않으면 언론을 통해 공개하는등 직접 압력을 넣는 방식으로 전개하고 '로비'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8. 지하철벽도 무단철거에 대해서는 바로 대처했어야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록 4.2) 끝.